

창업자들이여, 평범함에서 탈출하라



이상현
창업 칼럼

경기하락과 함께 엔데믹(풍토화) 이후 다양한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늘려왔던 대기 창업자들이 현실 창업으로 전환하는 실질 창업지수가 아직도 상승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폐업률은 증가했다. 창업 박람회나 관련된 행사에는 이전보다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창업을 함에 있어 창업 4요소인 창업자, 자금, 사업장, 아이템이 중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에 민감한 사회적 트렌드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2~3년간 두드러진 소비트렌드는 합리성, 가성비추경향,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편의지향 소비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사회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트렌드에 어울리는지를 따져본다. 창업도 예

외는 아니다. 창업이란 하나의 상품(아이템이나 업종)을 선택하기 전에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을지, 잘 팔릴지를 예측한 후 상품, 즉 아이템이나 업종을 결정하고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에도 트렌드 파악이 중요하다. 이것이 강조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창업시장의 생존경쟁 속에서 창업자들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성공창업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있다.

차별화된 아이템 공략, 변화에 변화를 더한 모니터링, 전술에서 전략까지 체계화된 마케팅을 통한 충성고객 만들기, 경쟁력을 요구하는 기술력과 서비스보안을 들 수 있다. 모니터링이나 경쟁력 등도 트렌드 분석의 중요성을 말한다. 한 때 저가형이나 웰빙 아이템이 사회적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창업시장에도 관련 아이템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처럼 사회의 트렌드에 어울리는 상품, 아이템이나 업종이어야 소비자 내수 시장 침체로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도 살아남는다. 2000년 이후에 떠오른 키워드가 저가형 아이템과 웰빙이다. 여기에

2010년부터 불기 시작한 복합화와 매스티지형 창업이 창업시장에서 붐을 이루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이후에는 안심, 복고, 디지털 소비, 가족제도의 분화, 솔로이코노가 소비의 중심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고객의 소비성향은 목적성 구매 고객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고객은 일정한 소비방정식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트렌드를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 조건과 충분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준다면 성공창업의 길은 더욱 가까이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 업종이나 아이템의 특징은 기존 시장의 평범함에서의 이탈로부터 시작되고, 차별성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지면서 충성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독창적이거나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의 아이템 단점과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변화에 변화를 더한 모니터링', '전술에서 전략까지 체계화된 마케팅을 통한 충성고객 만들기', '경쟁력을 요구하는 기술력과 서비스 보안'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줘야



김지수
김정산 (금융부)

20~30대의 대출 빛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2.5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만 19~39세 청년가구의 순수 금융부채는 845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빛을 진 청년들만 놓고 보면 1인당 평균 1억1511만원의 빛을 떠안고 있다.

지난해 3분기를 시작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서는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혜택 등을 제공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세대'라는 인식도 생기는 듯하다. 온라인에서는 "한탕주의에 빠졌다", "도덕적 해이가 을 수밖에 없다" 등 날 선 목소리가 나온다.

부정적인 여론이 등장해도 청년 맞춤 금융혜택은 지속, 발전해야 한다. 상환능력은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의미가 있다. 우선 상환능력이 떨어진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와는 관계없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빛을 탕감하고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년 맞춤 금융 정책을 살펴보면 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원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며 평생 빛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부담을 덜어주고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소비자가 어디든 묻고 따지지 않아야

한다. '카푸어', '골푸어', '빚투' 등 사치스럽고 무모한 방향의 소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관용의 시선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빚은 괴로움 수밖에 없어서다.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뢰와 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40대에는 주택구입 이후 대출금 상환으로 빈곤해지는 '하우스푸어', 50대에는 자녀 교육비에 허덕이는 '에듀푸어'와 가난한 자영업자를 뜻하는 '소호푸어'가 있다. 이 밖에도 노후 자금이 부족한 '리타이어 푸어'와 '실버푸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면 분명 우리 사회 수 많은 '푸어'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남길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 청년들이 눈엍가시 같더라도 한번 더 응원하고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kimsan119@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16일 (음 3월 2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자식자랑하다 체면 손상된다. 48년생 의외로 묶여있던 어려운 일이 풀린다. 60년생 증권도 계획 없는 투자는 손실로 이어진다. 72년생 가족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84년생 마음에서 마음인 심심상인(心心相印)이다.

소 37년생 분수를 알아야 분수를 지킬 것 아닌가. 49년생 옛 인연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61년생 살가운 권모술수를 조심해야 할 듯. 73년생 이상을 바꾸어가며 만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85년생 더위는 더위로 해결하도록.

호랑이 38년생 진정함 부자는 베풀면서 겸손해한다. 50년생 직장에서 도덕심은 나를 오래도록 이끌어준다. 62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74년생 양다리 걸치지 마라. 86년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다 쓸모가 있다는 것.

토끼 39년생 시대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51년생 옛말에 삼재팔난이라 했으니 먼저 배려하라. 63년생 종일 시장을 다니며 물건을 구경한다. 75년생 너무 계산하다가 좋은 사람 놓친다. 87년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말 40년생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격려하여 기쁘다. 52년생 옷이 남루하여도 슬퍼 말라. 64년생 돈도 능력이 부지런히 벌어들인다. 76년생 태풍 뒤에는 언제나 하늘은 맑아지게 된다. 88년생 간사 한자에 모함에 걸리지 않게 나도 말 조심.

뱀 41년생 집이 없어도 화목함이 있으니 다시 일으키게 된다. 53년생 본심이 밝고 맑으면 행복한 결과가 온다. 65년생 약속이나 기한이 늦어져도 다루지 마라. 77년생 자격 증시험 합격소식. 89년생 인간사세옹지마(人間事塞翁之馬).

닭 42년생 세상사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렸다 한다. 54년생 이리저리 어지럽게 출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다. 66년생 회로애락은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출발. 78년생 남의 말에 간섭하지 마라. 90년생 마음이 어진 선배조력은 힘이 된다.

개 43년생 기술력은 좋으나 세상 물정은 모른다. 55년생 죽음의 허무함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도 있다. 67년생 연인의 자취를 찾는 길이 없다. 79년생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이 간섭이라 하지만. 91년생 일이란 혼자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

원숭이 44년생 최소한 자기 주변에 인색하지 말라. 56년생 바쁠 때 건물목에서 차량주위. 68년생 조부모님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듯. 80년생 자신의 허물은 생각 않고 항상 남의 잘못만 고집어낸다. 92년생 뜻 맞는 사람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

닭 45년생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 날. 57년생 잘난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69년생 때로는 안경을 벗어보면 보인다. 81년생 영업에서 실적이 없으면 더욱 피곤한 것이다. 93년생 주택 집에 오동나무를 심어 볼까나.

돼지 46년생 역마의 기운으로 먼 길 떠나 객지 밥을 먹는다. 58년생 작은 부주의로 일을 그르치지 말라. 70년생 약한 자가 강자에게 달갈로 바위를 친다는 말을 살피라. 82년생 남의 탓하지 말고 현명하게. 94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 있다.

돼지 47년생 나이 먹을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 하는 글귀를 보라. 59년생 과시에 치중하면 복덕을 깎는다. 71년생 학력위조는 결과가 시끄럽다. 83년생 말이 많다 보니 내면이 빈곤. 95년생 공부하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바꾼다.



김상회의 **김상회의**
풍수, 전원주택 집터

은퇴라는 말은 많은 것들을 떠오르게 한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피곤 휴식 자연 같은 단어들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평생 피곤했던 일에서 벗어났으니 편안한 휴식을 누릴 때이기도 하다. 쉬고 싶은 마음은 자연으로 향한다. 푸른 숲과 한가로운 생활을 원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산으로 들어가고 시골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때 현실적인 선택은 전원주택이다. 은퇴한 뒤에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얼마 전 찾아온 분은 중견기업 CEO로 평생을 일하고 은퇴했다. 십여 년 전부터 아들에게 경영수업을 시키고 이제는 회사경영에서 손을 떼려 한다. 오랜 꿈 전원주택 집터를 고르다 풍수가 궁금하다며 상담을 청했다. 집터를 고를 땐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좋은 기운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되는 수맥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또 피해야 할 곳은 하천을 덮어 복개한 곳이다. 물이 집을 치고 가는 형상이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시골에서 가족을 도축하던 곳이나 혐오 시설이 있던 곳은 땅 기운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 큰 필지의 자투리땅이나 뾰족한 모양의 땅은 날카로운 기운이 부정적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 경사진 각도가 급하거나 한쪽으로 기운 곳도 좋지 않다.

가세가 약해지고 후손들의 발전이 어려워진다. 집터를 고를 때 흔히들 좋은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꾸로 접근하는 게 풍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피해야 할 집터를 걸러내면 나쁜 선택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다. 나쁜 선택을 걸러낸 상황에서 좋은 요소를 찾으면 더 좋은 선택의 확률이 높아진다. 은퇴 뒤 전원생활 집터를 찾을 때 풍수는 최고의 길라잡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능력 향상**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4	6	8	
		3	8		
3					9
7	8		5		6
9					2
		2	1		
	8	9	7	2	

			6		
5					3
	2	3	4	1	9
	7		1		5
		8			9
	1		9		6
	5	7	8	6	3
8					5

정답

1	8	2	9	6	8	9	4
9	8	6	8	4	9	1	2
9	4	2	1	8	2	8	9
2	2	1	4	8	9	6	9
8	9	4	6	9	1	2	8
8	6	9	2	9	4	8	1
2	9	8	1	8	6	4	9
4	1	8	9	6	2	9	8
6	9	8	9	2	4	2	1

2	4	8	9	8	1	2	9	6
9	1	2	6	2	9	4	8	8
6	8	9	4	8	2	2	9	1
8	9	2	6	4	9	1	8	
1	2	6	2	9	8	8	4	9
4	9	8	9	1	8	6	2	2
9	6	1	8	4	9	8	2	2
8	8	4	1	2	2	9	6	9
2	2	9	8	9	6	1	8	4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8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9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